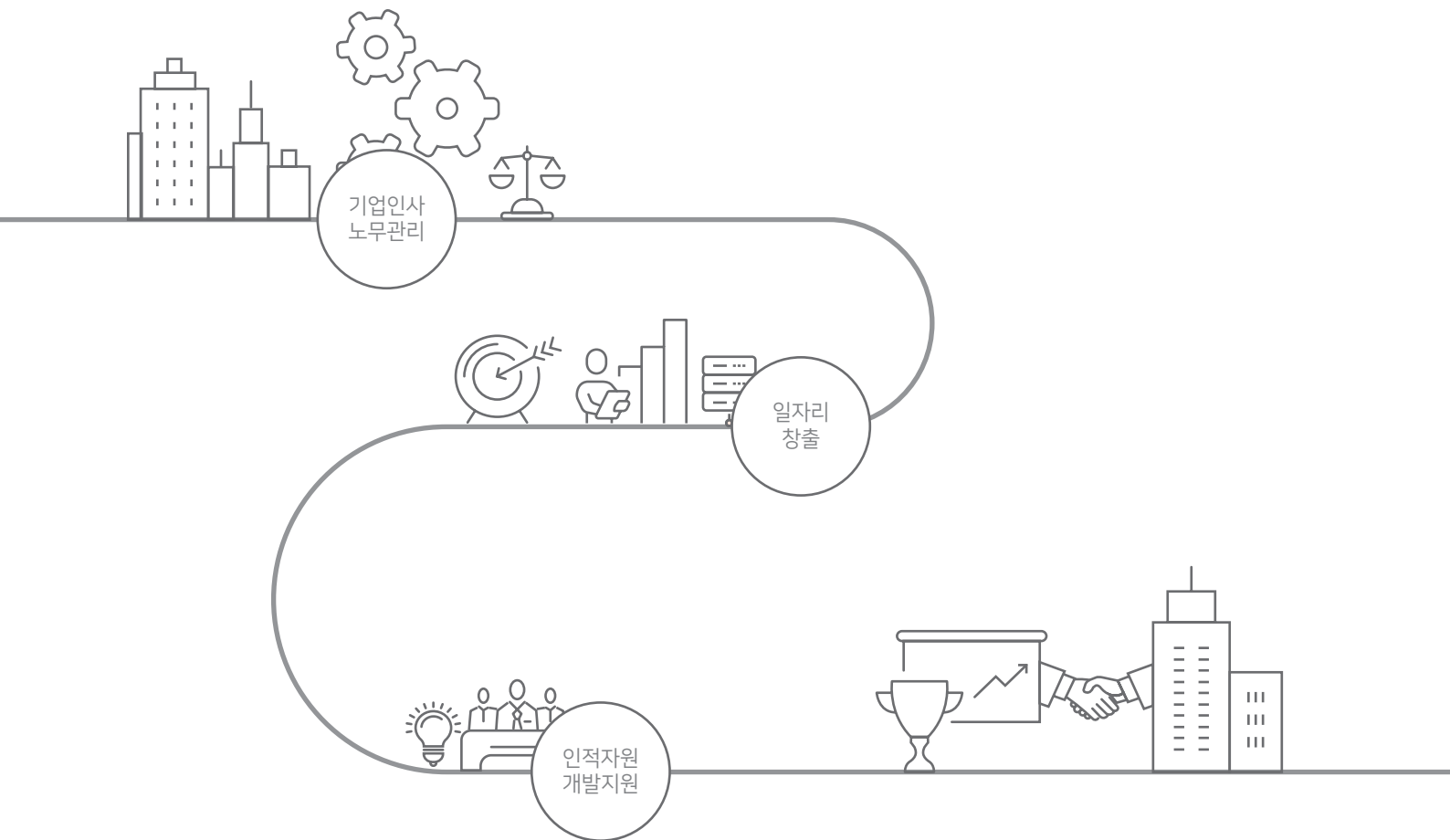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2025년 2월...1위



2025년 2월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광주은행, 2위 부산은행, 3위 전북은행 순으로 분석됐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사회공헌가치로 나누게 된다.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

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CEO지수 로 브랜드평판 분석했다.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알고리즘 사회공헌지수를 강화하면서 금융소비보호 관련지표를 포함하고,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ESG 관련지표와 오퍼리스크 데이터도 포함했다..

◆ 첨단금융센터 이전...자산관리 라운지 신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금융센터 이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첨단금융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첨단중앙로 신축건물에 자리잡아 쾌적한 환경은 물론 넓은 주차시설까지 확보돼 편의성이 개선되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WM라운지에는 금융상담전문가인 전담 PB직원을 배치하여 고객별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개별화된 자산관리를 통해 최적의 금융솔루션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새롭게 문을 연 첨단WM라운지를 통해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가 되고,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여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광주FC 응원'...23일까지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2025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광주FC팬들을 위해 광주FC와 스포츠 브랜드가 '골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으로 광주FC 구단의 새로운 유니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최근 새롭게 출시된 광주FC의 유니폼 뿐만 아니라 골스튜디오의 다양한 의류와 신발도 함께 구성돼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이번 2025시즌 ACLE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는 '빛'을 콘셉트로 광주만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한 그래픽을 삽입해 광주의 정체성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FC의 기대 넘치는 2025시즌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유니폼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광주FC팬분들과 고객들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쌀 1만포 광주시에 기부...소외계층 전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이날 쌀(10kg) 1만포, 2억4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쌀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가정 등에 전해진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기부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농민들과 복지소외계층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2024년 글로벌 경영실적 발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2024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 5,381억원, 영업이익 5,906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12.3%, 영업이익 43.7% 증가한 수치다.

금호타이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 2,466억원(영업이익 1,5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5% 오르며 2023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완성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금호타이어는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에서 모두 판매가 확대되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고수익 제품 중심 밸류 개선, 판매 가격 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 창출, 유통채널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경영목표로 매출액 5조원 달성,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6%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비중 26% 확보 등을 제시했다. 금호타이어는 매출액 성장률을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올해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 등 글로벌 시장 확장과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 '2025 英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냉장고 부문 1위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브랜드스파크'와 함께 1만7000여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유아동

용품, 식품·음료, 건강, 미용·개인 관리, 가전용품 등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선정했다.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해 12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 인증을 받으며 그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로열 워런트는 최소 5년 이상 왕실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업체를 평가해 부여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이다.

한전KDN

◆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학기술혁신 유공통합 시상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포상하는 자리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전KDN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 국산화 연구와 실증 등 국가 전력 계

통과 한전KDN의 독자적 에너지ICT 플랫폼 '이음' 등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혁신적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신기술 개발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화에 중점을 뒀 전력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 창출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형 사장은 "이번 표창은 한전KDN 전 임직원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써 에너지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 확대 나선다



한전KPS(사장 김홍연)에 따르면 '팀 코리아'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공사 사업 참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 등 신규 해외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공사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합의

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전KPS는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도 빈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오랜 경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원전 및 화력발전 정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면서 "올해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전략적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 임직원 기부금 10억원 돌파



호반그룹 대한전선은 미국 LA(로스엔젤리스) 산불로 인해 손실된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전력 케이블을 LA수도전력국(LADWP)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LA수도 전력국(LADWP: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전력

기관으로, LA지역의 전력과 수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LADWP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전력 인프라 복구 사업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제품 공급 및 기술 검증을 완료한 만큼 전력 인프라 재건을 위한 긴급 물량에 즉시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전력 회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알 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74회 금요조찬포럼>

나의 인생 나의 야구

(김성한 감독)

1674회 금요조찬포럼은 김성한 광주광역시소프트볼협회 회장을 초청하여 「나의 인생 나의 야구」를 주제로 자신이 경험한 50년 야구 이야기 대하여 강연했다.

“야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야구부 감독에게 직접 발탁이 되어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작을 주전 선수로 활약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선수로 초등학교 때부터 승승장구 했지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야구를 그만둬야할 위기에 처했으나, 추천제로 진행되던 중학교 배정에서 다행히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해 야구를 이어갈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방황을 하며 야구를 손에서 놓았지만, 당시 교감이었던 이준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야구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군산상고에 진학하여 수많은 동료들과 우승을 거머지고, 대학에 진학하여 1982년 프로야구 창설에 맞춰 해태타이거즈 입단, 7번의 우승과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끝으로 ”프로선수와 감독 생활로 늘 날선 신경과 전투적인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잊게 됐던 게 후회가 된다“며 ”특히 야구를 그만둔 후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해 지기 때문에 많이 변하려고 노력한다“ 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1. 경제동향

◆ 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 발표 (2.2)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월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6%로 보고 있으며,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 또한, 앞으로의 우리산업경쟁력에 대해 “비관적” (56%)이 “낙관적”(9%)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경제전문가(경제학과 교수 1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조사기간 : '25.1.6~'25.1.17)

- ①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학자 100명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정부 전망치(2025.1)보다 낮게 나타남.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침.
- ② (우리 경제 성장 전망)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한 경제학자는 없었음.
- ③ (산업경쟁력 전망) 업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음.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34%, “낙관적” 응답은 9%에 불과
- ④ (美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의 83%가 “美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변.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침.
- 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방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10점 척도)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

* 각 정책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측정하기 위해 10점 척도(0점: 필요하지 않음, 5점: 필요하나 시급성 보통, 10점: 필요하며 매우 시급)로 설문을 실시함.

* 시급성 높음 + 시급성 매우 높음: “산업 구조개혁 촉진” 89%, “노동시장 선진화” 73%, “기업 규제 개선” 73%
- ⑥ (법인세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 중 34%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행 수준

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지금 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남.

- (상속세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60%,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남.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 “인상” 응답은 7%로 각각 집계.

⑦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음.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40%,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응답은 없었음.

⑧ (재정 운용 기조)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음.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7%)보다는 높았음.

⑨ (환율 전망) 환율(원/달러)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

- (기준금리 전망) 올해 연말 기준 기준금리(3.00%)는 현행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음. “2.5% 미만 전망” 응답은 11%였으며, “3.0% 이상”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남.

◆ 경총, 「저출생 위기 극복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기업 참여 현황 발표 (1.24)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저출생 위기 극복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에 25개 기업이 참여

* 챌린지 참여 기업 : 건우솔루션, 남경엔지니어링, 레드브릭스, 롯데멤버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모션, 슈프리카, 스칼라웍스, 신세계푸드, 에어퍼스트, 예지솔루션, 이스트소프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테크빌교육, 티에스엔랩, 퍼포먼스바이TBWA, 푸드엔, 푸본현대생명, 풍림무역, 플래티넘브릿지, 한국리서치, 한미글로벌, GS리테일, SK티엔에스(이상 25개사, 가나다)

-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의지를 다지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챌린지 표어를 들고 촬영한 인증 사진과 메시지를 개별기업 홈페이지나 SNS 채널에 자유롭게 게시하는 형식으로 진행

◆ 중기부, 환율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환율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안내
- (환율연동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기부 지침에 따라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납품기업(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을 통해 환율을 반영한 연동약정 체결 가능
-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컨설팅 등 지원 가능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2.3)

- 2024년 12월중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4.6%), 서비스업(1.7%)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2.3%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4.6%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1.7% 증가
※ 12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9%p 상승한 73.5%
- 2024년 12월중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9.9% 증가. 건설기성은 전월에 비해 1.3% 증가.
-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6(전월대비 보합),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전월대비 0.2p 하락) 기록

〈 202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 〉

- 2024년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1.7% 증가
※ 전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 전년대비) : 1.1(20)→ 5.5(21)→ 4.8(22)→ 1.0(23)→ 1.7(24)
-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4.1% 증가
※ 2024년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년에 비해 1.0%p 상승한 72.9%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으나,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1.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 폭(1.4%)은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저치
- 2024년 소매판매는 준내구재(3.7%), 내구재(3.1%), 비내구재(1.4%) 판매가 모두 줄어 전년대비 2.2% 감소
※ 소매판매는 2022년(0.3%)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은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 전년대비) : 0.1('20)→5.8('21)→0.3('22)→1.5('23)→2.2('24)
- 2024년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대비 4.1% 증가
- 2024년 건설기성은 토목(1.8%)에서 늘었으나,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년대비 4.9% 감소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

- (총괄) 2025년 1월 수출은 491.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했으며, 수입은 510.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 * 수출은 지난 '23년 10월(4.9%)부터 '24년 12월(6.6%)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25년 1월 감소 전환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7.1('24.9)→4.6(10)→1.3(11)→6.6(12)→10.3('25.1)
- 2025년 1월 무역수지는 18.9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무역수지는 '23년 6월(12.4억달러 흑자)부터 '24년 12월(64.9억달러 흑자)까지 19개월 연속 매월 흑자를 기록했으나, '25년 1월 적자로 전환
-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64.3('24.9)→31.7(10)→55.8(11)→64.9(12)→18.9('25.1)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 중 컴퓨터(14.8%), 반도체(8.1%)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2.1%), 인도(4.3%), 중남미(6.3%), 일본(7.8%), 미국(9.4%), EU(11.7%), CIS(12.5%), 중국(14.1%), 중동(19.9%) 수출이 모두 감소

◆ 통계청,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5)

-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7월(2.6%)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9월(1.6%)부터 12월(1.9%)까지 4개월 연속 1%대를 지속하다가 '25년 1월에는 2%대(2.2%)에 진입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6('24.9)→1.3(10)→1.5(11)→1.9(12)→2.2('25.1)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3.9%), 교통(3.3%), 음식 및 숙박(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1%)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2%)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2025년 1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3)

< 근로실태 부문('24.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8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5천원 (2.3%)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3시간(3.8%) 감소
- ※ '24년 11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22일→21일)

< 고용 부문('24.1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0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명(0.4%) 늘어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입·이직) 입직자는 8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1.4%) 감소했고, 이직자는 97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1.3%) 감소

2. 노사동향

◆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 난항 전망

-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 3「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당론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 ※ 반도체특별법 주요 내용 : ①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② 반도체산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③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 ※ 금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책위 의원, 반도체 관련 사업장 노사등이 참여
- 특히, 반도체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총근로시간이 확대되지 않는 전제로 ▲고소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하에 ▲한시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발언
- 한편, 여야정은 2. 10「국정협의회」를 개최해 추경예산 편성,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 난항 우려
 - ※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
- 정부·여당은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의 별도 논의 입장
- 정부·여당은 2. 4「당정협의회」에서 주요 경쟁국과 같은 반도체 산업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6「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상 쟁점사항인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은 별도로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한편, 경영계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강조
- 손경식 경총 회장은 2. 6「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개회사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 등은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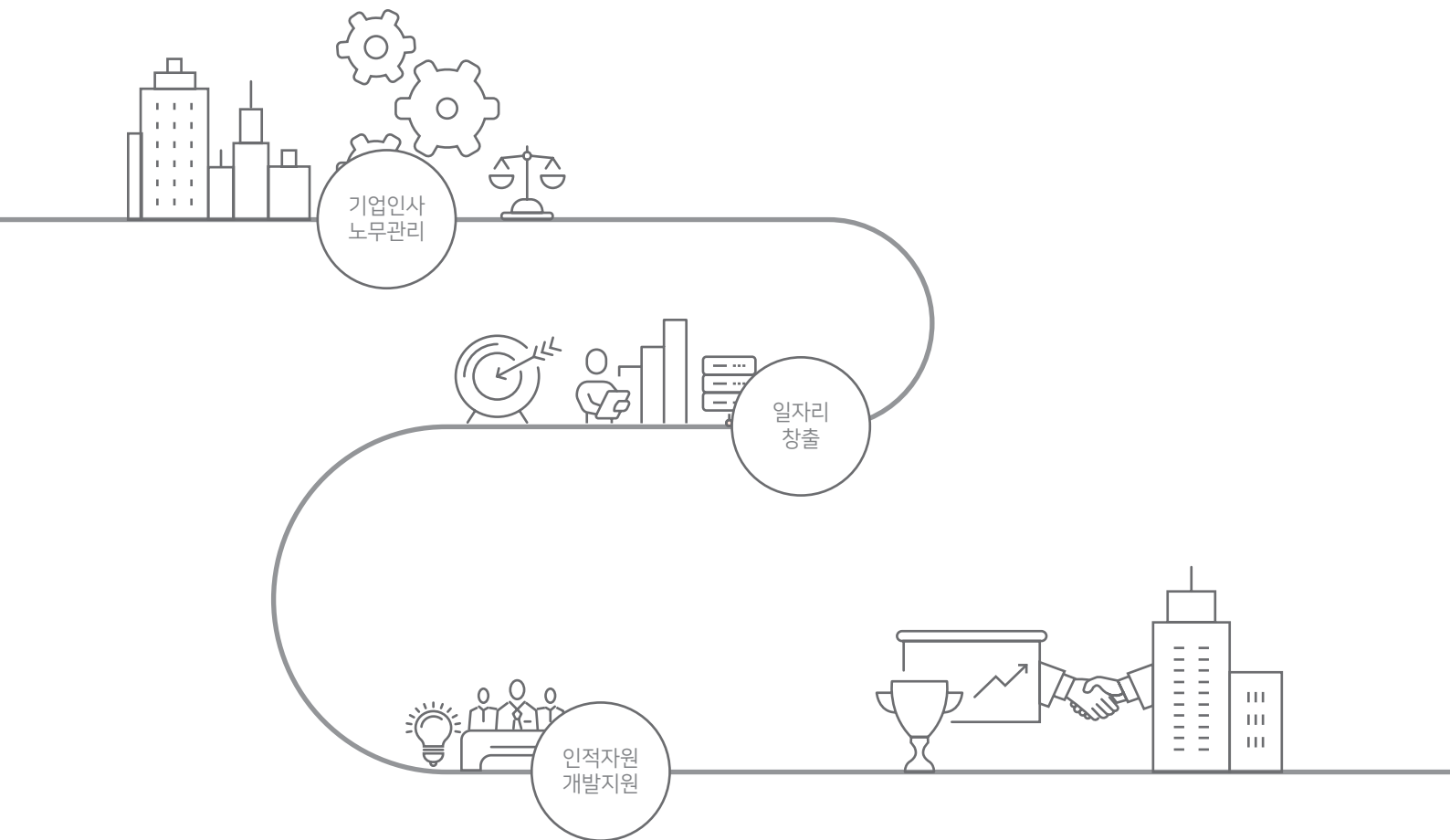
◆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대법원은 '24. 12. 19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용부는 2. 6 「전국기관장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식을 정리
 - ※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동향 참고
 - 고용부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 취업규칙 변경시 절차준수를 지도할 계획
- 한편,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및 소송 등으로 혼란 가중
 - 현대차 노사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 이후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현대차노조는 명절귀향비 및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할 전망
 - * 기본급 750%의 상여금 중 기존 6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150%도 추가로 포함
 - 기아차노조는 2월 말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한 연차수당 등의 소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전망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2. 7 제5차 실무협의에서 노사5단체 논의의제 및 운영방향 발표 마무리 예정
 - ※ 노사 5단체 :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에서는 지난해 11. 22부터 각 단체별 논의 의제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 중
- 국회의장실은 2. 21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나, 논의 의제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
 -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보장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노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의제 제시
 - 경총은 4차산업 혁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한 인재양성 및 인적기반 구축을 의제로 제시했고, 향후 국회 내 사회적 대화가 공식화될 수 있는 만큼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및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 등을 의제로 추가 제시할 예정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금요조찬포럼 회원사 무료 참가

- 경제·경영 이슈 및 인문학 등 전문가 초빙 강연
- 회원사 CEO(임원), 기관단체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 일자리센터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 (연 1회) 	716- 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관리자 (직책,근속기간 제한없음) -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 -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 -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 작성 등 *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 교육 가능 	654- 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대 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716- 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 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